

성범죄자 군집유형분석과 프로파일링 연구*

서종한 김경일**
제주지방경찰청 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111명의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다른 범죄행동 변인보다 지속적이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16개의 행동특성 변인들을 준거로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군집분석 결과, 대표적으로 설명력이 가장 높은 6가지 군집 유형을 추출할 수 있었다. 16개의 범죄행동 변인의 특성을 포함하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집의 특성을 정리 하였다. 군집 1을 성인대상 연쇄성 성적특이침입 강도 접근형, 군집 2를 성인대상 비연쇄성 단순침입 강도 접근형, 군집 3을 성인대상 연쇄성 단순비침입 비강도 접근형, 군집 4를 성인대상 연쇄성 단순비침입 접근형, 군집 5를 성인대상 비연쇄성 단순침입 비강도 접근형, 군집 6을 아동청소년대상 비연쇄성 단순비침입 비강도 접근형으로 세분화 하여 설명하였다. 이 후 각 군집별 피의자 관련변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 체격상태, 결혼상태, 동거인, 직업유형, 총전과 횡수, 주요전과, 유사전과, 양육형태, 양육특징, 피학대경험, 학대경험, 개인스트레스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범행동기, 강간장소와 피의자주거지간 거리, 음주횟수, 음주 후 행동, 성적습관, 성 관련 수집은 군집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군집별 평소생각, 콤플렉스, PAI 척도, 정신과이력 등에 대해 다중응답 분석한 결과 군집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요어: 강간범, 군집분석, 프로파일링, 사회인구학적 통계

과학수사 분야가 법정에서 공판과 배심원 중심의 판결이 이루어지면서 구증과 증거확보의 과정에서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각광을 받음은 물론 현장에서 유류된 증거물들을 수집하는 체계적인 기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기법은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범죄현장에서 현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차적인 심리적 증거들을 분석, 용의자상을 추정하는 프로파일링 분야 역시 과학수사의 한 분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곽대경, 2001). 그러나 아직까지 프로파일링의 입지는 분석가의 눈에 달려 있는 주관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Hicks와 Sales(1991)

는 비과학적 프로파일링에 나타나는 5가지 단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준과 목표의 결여, 두 번째, 부정확한 개념과 정의, 세 번째, 프로파일링에서 유형학의 응용, 네 번째, 육감과 직관력에 대한 의존, 마지막으로 명확한 절차의 결여 같은 것들이다. 다시 말해, 프로파일링 자체는 심리학적이고, 사회적인 지식과 현장에 대한 감을 결부시킨, 사건을 분석하는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비과학적 분야라는 것이다. Douglas, Burgess와 Ressler(2006) 등은 프로파일링을 범죄행동 분석의 과학적인 도구로 만들기 위해 범죄분류매뉴얼(Crime Classification Manual)을 출간하면서, 범죄행동

* 서종한은 제주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실에 재직하고 있으며 김경일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하고 있음
** 교신저자 : 김경일,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E-mail: kyungilkim@ajou.ac.kr

을 조직화시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으로 발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과학이 유기체가 세대를 거쳐 진화, 확산되기 시작하며 종족 구성원들 간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또는 다른 종들과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알아볼 때 점진적으로 시작되며, 과학은 본질을 우선 관찰을 하고 나서 대상을 범주화하고 비교하고 분류하는데 있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범죄행동 혹은 현상에 대한 분류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식의 체계화를 가져다주고 수집된 자료들이 공통되고 결정된 변인들에 따라 분류되는 일련의 절차로서 프로파일링의 과학적 접목에서 주요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형사사법 분야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표준화하고 형사사법과 정신건강상의 관계성을 밝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유형들을 알리고 수사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Douglas et al., 2006. p. 22). 이런 취지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표준화와 과학화를 시도했던 'Holmes & Holmes 분류'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몇 가지 전제에서 출발하여 체계적인 분류가 최초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테면 다양한 범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 유사하다면 범죄자들도 어떤 공통적인 성격과 특징들을 공유할 것이라는 것이다(Holmes & Holmes, 1996). 이 방법은 분석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며 그만큼 인력 및 시간 비용이 적게 들 뿐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범죄학, 정신의학과 같은 분야의 지식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아도 되는 유리한 점이 있다. 이는 프로파일러(Profiler)의 능력과 자격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행동에 관한 특별한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Holmes & Holmes, 2002). 그러나 이러한 귀납적 접근법은 제한된 인구학적 표본들을 가지고 일반화하였기 때문에 개 개인의 본성을 유형에 맞추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인 단점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일반화된 분류법으로 인해 사건과는 무관한 개인이 연루될 수도 있으며, 해당 사건에는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요소까지 포함되어 분석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Turvey, 1999).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범죄 심리학과 인지심리학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강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국적 유형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사건분석 이전에 사건유형에 대한 총체적인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국의 사건이 외국과는 달리 어떤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요소들이 더 반영되고 덜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 프로파일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강간범죄의 가해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기에 먼저 강간범죄 가해자들에 관한 다양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Henn(1978)은 강간범죄 가해자가 주로 반사회적 성격 성향과 행동 경력이 있고, 부모의 애정과 어린 시절의 정신적인 외상경험들과 같은 배경적 특징들이 폭력적인 성적 가해행위들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즉, 성적 가해자들은 어린시절에 심리·성적 학대, 부모로부터 거부당한 경험 그리고 일반적으로 불행한 양육기를 거쳤다는 것이다. Wolfe와 Baker(1980)는 강간 범죄자들을 젊고, 가난하고, 소수민족이며, 범행 이전에 술이나 약물을 복용했었고, 이전에 범죄경력이 있으며 반사회적인 인성을 가졌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으며 폭력적인 성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강간범죄들을 대상으로 유형화하려는 대표적인 연구(Hazelwood, Warren, 1989)에 따르면, 강간이 상황적인지 혹은 우선적인 성적 동기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충동적인 범죄자와 의식적인 범죄자 두 분류로 나누고 있다. 두 범죄자 모두 범죄의 심연에 힘에 대한 욕망과 분노라는 감정이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충동적 범죄자는 지능이 낮으며 대체로 어리석고 금방 체포된다. 반면 의식적인 범죄자는 성적인 충족과 각성, 만족을 위해 의도적인 범행을 하기에 환상의 설계에 엄청난 시간을 들여 수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중하게 결정한 다음 행동으로 옮기려는 경향이 있고 자신이 선호하는 특별한 대상이 분명히 따로 있다.

Felson과 Krohn(1990)은 가해자의 행위로부터 범죄 동기에 대해 유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폭력형태들에 대한 이론들에 근거하여 강간의 동기를 준거로 사회적-성적 모델과 처벌 모델로 유형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성적 모델은 강간범이 강간의 목적이 성관계를 갖는 것이며 위협이나 협박은

단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사회적-성적'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의 성행위 동기가 비이성적인 동기들에 기반한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고, 완전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므로, 여기서의 폭력은 단순히 위협적인 행위라 나타나는 것이든 명백하게 폭력적이든 간에 전략적인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모델은 가해자의 연령과 폭력 수준 사이에는 정적 관계가 있다고 예측한다. 반면, 처벌 모델에서 폭력을 포함한 강간은 피해자를 해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즉, 가해자들의 폭력 사용이 비전략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강간을 하는 동안에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상처를 입히며, 성적인 동기에 의해서 강간을 하는 가해자들 보다 더 폭력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Groth와 Field(1983)는 강간은 지배와 권력의 표출에 있다고 보고 공격의 양에 따라 분노형, 권력형, 가학형, 기회주의형 등 4가지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분노형은 아주 폭력적이며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굴욕을 주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로 공격한다. 이는 범죄자가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한 복수의 형태로 행해지며 언어적 학대 등을 통해 여성 차별적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권력형은 자신의 우월성, 우세, 통제를 매개로 성적 만족감의 추구가 아니라 성행위를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강간한다. 권력형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자기의 주체성, 성적능력, 지배성을 증명함으로써 자신 속에 있는 열등감, 왜소감을 부정하려 한다. Holmes & Holmes(1996)는 이를 다시 권력확인형과 권력주장형으로 나누고 있다. 다음으로 가학형은 범행이 가학적 공격행위 그 자체에 흥분하는 범죄자들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성의 무기력한 모습과 고통 받는 모습에서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반항을 하는 피해자로부터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희생자들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입을 막는 등의 거칠고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Holmes & Holmes(1996)가 분류한 유형에서는 가학성의 정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성적, 신체적 공격이 명백히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를 테면 높은 수준의 공격이란 상처는 배임, 찰과상보다 크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을 때도 피해자를 굴복시키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회주의형은 처음부터 성적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재상범죄 등을 행하는 과정에서 성적충동으로 인해 강간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런 충동적인 강간범은 강간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를 거의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체계화된 환상 혹은 성적의식보다는 즉시적인 성적 만족을 위해 강간한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미 진행 중이고 상당부분 현장에서 수사관들에 의해 활용되는 단계까지 와 있다. 한국에서도 경찰청, 검찰청, 형사정책 연구원의 프로파일러와 연구원들에 의해 강간범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2007)은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2005)에 입력된 강간범들의 자료를 활용하여 Groth와 Fields(1983)의 유형과 비교한 바 있고, 최인섭, 전영실, 이종태(1991)는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강간범을 유형화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전영실(2007) 등도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또한 김경옥(2009)은 방화범죄자의 프로파일링에 대해 연구하였고 김지선(2009)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유형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였다. 고선영, 김경옥, 유지현, 정연대, 최대호(2010)는 연쇄강간범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Canter(2003)의 연구결과에 비교, 검증하여 한국적인 유형으로 분석하였고 추창우와 박희정(2010)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의 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석하고 가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진숙과 홍상남(2008)은 연쇄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변인에 대해 연구하였고 공은경(2009)은 범행현장 분석과 행동특성을 중심으로 연쇄성범죄자의 프로파일링 연구를 하였고 서종한(2010)은 성범죄자들을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프로파일링 연구를 체계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정연대(2009)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계 특성에 따라 범죄행동특성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범행 현장에서 유형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범행현장, 피해자, 피의자-피의자 관계, 범죄행동 특성, 성행위 특성 등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강간범죄자의 행동 특성 중 피의자들 간 확연히 구별되는 특성을 추출하고 이에 따라 강간범죄자를 유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나의 변수만을 기준으로 다양한 동기와 다양한 행동, 다양한 범행수법을 가진 강간범들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는 일은 강간범죄의 일반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데는 적합하다. 하지만 단일 사건에서 조차 무수히 많은 변인들이 조합되고 다양한 평가가 난무하는 실제 범죄현장에서는 하나의 변인만으로 혹은 하나씩 평가해 가는 방법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는 일이다. 따라서 피의자 범죄행동 중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행동특성과, 범죄현장 특징을 구분하고, 이러한 행동특성들을 기준으로 강간 가해자를 유형화(군집) 하였고, 유형(군집)별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범죄 행동 특성을 파악·정리하여 강간사건 범죄분석에 하나의 기준과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조사자료 중 111건의 면담결과보고서와 94개의 개별 변인으로 구성된 111명의 강간범죄 가해자의 행동특성을 정리하고 비교분석하면서 비교적 지속적이면서 범죄행동 간에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는 특성인 범행현장 특징(범행시간, 야외, 피의자주거지와 거리), 피해자 특징(피해자 성인 여부, 면식관계 여부), 성행위 특징(특이성적습관, 성적대화 시도 여부), 범행수법 특징(연쇄성, 유인/속임수방법, 범행도구사용, 제압적극성, 은폐성, 과격한폭력2회이상, 도난품, 특이종결방법 여부) 등 총 16개의 행동특성변수로 군집분석 실시하였다. 되도록 현장, 피해자,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범행 발생 후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군집을 분류하였고 각 군집별 용의자 특징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분석관이 현장의 특징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용의자를 하나의 군집에 분류할 수 있게 하였고 군집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피의자 관련 변인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프로파일링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최근 3년간(2007.1.1~2010.9.22)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2005) 범죄분석 피의자면담자료 중 성폭력 사건 759건 중 군집 분석에 필요한 변인 정보가 부족하거나 각 군집별 프로파일링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것을 제외한 111건을 표집하였고 범죄현장 관련변인(6개), 피해자 관련변인(13개), 가해자 관련변인(24개), 범행과정 관련변인(25개), 성행위 관련변인(25개) 총 93개의 변인을 측정하여 강간범의 유형 분류를 위한 통계분석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군집별 가해자의 특성만을 알아보기 위해 24개의 가해자 관련변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소아·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28명,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4명,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31명, 연쇄 성범죄자는 28명이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소아·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면식이 53.6%, 비면식이 46.4%였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비면식이 79.2%, 면식이 20.8%였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비면식이 51.6%, 면식이 48.4%였고 연쇄 성범죄자의 경우 비면식이 92.9%, 면식이 7.1%였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0.9세였고 10대가 10%, 20대가 25.2%, 30대가 27.9%, 40대가 28.8%, 50대가 4.5%, 60대가 3.6%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초졸이 7.2%, 중졸이 18%, 고졸이 45.9%, 대졸이 27%, 대졸이상이 0.9%였으며, 결혼경력은 미혼이 58.6%, 기혼(초혼포함)이 19.8%, 별거 1.8%, 이혼·사별이 5.4%, 동거 4.5%, 재혼이상이 4.5%, 이혼 후 동거가 5.4%로 나타났다.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무직이 28.8%, 단순노동이 18%, 생산기능직이 15.3%, 서비스직이 9.9%, 판매직이 3.6%, 자영업이 4.5%, 농·어업이 1.8%, 사무직이 6.3%, 학생이 11.7%로 나타났다. 강간범들이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들은 친부모와 형제가 18.9%, 편부 혹은 편모가 10.8%, 양부모가 0.9%, 배우자와 자녀가 32.4%, 형제를 포함한 기타가 6.3% 순이었다.

측정도구

각 군집별 가해자 관련변인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해자에 관련된 변인 24개를 면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가해자 관련변인은 연령, 최종학력, 신장, 체중, 체격, 결혼경력, 동거인, 직업유형, 음주횟

수, 음주 후 행동, 성격유형, 평소생각, 콤플렉스, PAI 척도, 정신과경력, 양육형태, 양육특징, 학대경험, 피학 경험, 총 전과, 전과경력, 유사전과, 성적습관, 성관련수집품 등이었다. PAI는 경찰청 범죄분석관이 가해자와 면담 중 실시하여 얻은 결과이고, 각 24개 변인에 대한 내용은 가해자와 2시간가량의 면대면 면담에서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 얻어내 내용이다. PAI(Morey, 1991)는 피검자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비일관성(ICM: Inconsistency), 저빈도(INF: Infrequency), 부정적인 인상(NIM: Negative Impression), 긍정적인 인상(PIM: Positive Impression) 등 4가지 타당성척도, 신체적 호소(SOM: Somatic Complarints), 불안(ANX: Anxiety), 불안관련장애(ARD: Anxiety-Related Discorder), 우울(DEP: Depression), 조증(MAN: Mania), 망상(PAR: Paranoia), 정신분열병(SCZ: Schizophrenia), 경계선적 특징(BOR: Borderline Features), 반사회적특징(ANT: Antisocial Features), 알코올문제(ALC: Alcohol Problems), 약물문제(DRG: Drug Problems) 등의 11가지 임상척도, 공격성(AGG: Aggression), 자살관념(SUI: Suicide Ideation), 스트레스(STR: Stress), 비지지(NON: Nonsupport), 치료거부(RXR: Treatment Rejection) 등 5가지 치료고려척도, 지배성(DOM: Dominance), 온정성(WRM: Warmth) 등 2가지 대인관계척도 총 22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0개 척도는 복잡한 임상적 구성개념의 의미를 구체화시키고 장애의 상대적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고 해석하기 위한 3~4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분석 방법

SPSS 16.0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하였다 (1) 성범죄 집단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동질적인 프로파일 유형을 찾아내기 16개의 관련변인을 기준으로 이분형 방법(Binary, 유, 무)을 사용해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변수 값들의 차이를 제곱합(Error Sum of Square)한 거리인 유클리드를 다시 제곱한 값을 최소화 하도록 군집들을 병합시키는 방법이다. 이 후 데이터를 2개로 나누어 제1의 군집의 반분결과와 제2의 군집 반분결과를 전체

의 결과와 비교하여 군집분석 신뢰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2) 군집유형에 적용한 16개 관련변인에 대해서는 각 군집별로 빈도수와 백분율을 구한 후 백분율이 80% 이상일 때 '상', 60% 이상에서 80% 미만 사이일 때 '중', 60% 미만일 때 '하' 등으로 3단계 수준으로 나누었다. 즉 빈도수와 백분율이 중, 상일 경우 각 군집은 그 변인에 대한 특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변인을 포함하는 수준에 따라 각 군집결과를 해석하였다. (3) 6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여 각 군집별 가해자 관련변인 24개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분석, 상관분석, 교차분석,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Agglomeration Schedule에서 군집의 수가 6개일 때 유사성 값의 변화(5.7)가 가장 많았고 수직고드름(VICICLE) 형식으로 묶이는 차례 따라, 군집의 수를 6개로 지정하여 군집별 16개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빈도수와 백분율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군집의 수를 6개로 지정했을 때 군집별 사례수가 적절하고 해석적 의미가 극대화되므로 연구자가 군집의 수를 6개로 최종 결정하였다. 군집유형에 사용한 관련변인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은 표 1에 나타나 있으며 군집별 16개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통계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는 군집별 16가지 관련변인의 빈도수와 백분율을 나타낸 결과로 각 군집에 해당되는 백분율이 높을수록 각 변인의 특성을 많이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데이터를 2개로 나누어 제1의 군집의 반분결과와 제2의 군집의 신뢰도 분석결과 신뢰도는 .77로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1은 범행현장 변인(2개), 피해자 관련변인(2개), 성행위 변인(2개), 범행수법 변인(10개) 등 총 4개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16개의 관련변인으로 세분화 하였다. 16개 관련변인은 현장과 피해자로부터 명확하게 확인 될 수 있으며 비교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표 1. 군집유형 16개 관련변인

군집분석 관련 변인	판단 내용
1 사건의 연쇄성 여부	장소 시간 피해자가 다른 3건 이상 별개 사건
2 새벽시간대(00:00-06:00) 범행 여부	새벽 00:00-06:00 강간범행 실행한 경우
3 가해자가 피해자와 비면식 관계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간 비면식 관계 이상인 경우
4 피해자가 성인인지 여부	피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 경우
5 범행장소와 피해자주거시간 동일여부	강간 피해 장소와 피해자의 주거지가 동일한 경우
6 범행장소형태가 야외인지 여부	강간 피해 장소가 주거지가 아닌 야외현장인 경우
7 범행접근방법이 유인·속임수인지 여부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방법이 속인이나 유인인 경우
8 피해자 접근시 주거지 등의 침입 여부	피해자 접근 과정에서 침입발생이 있는 경우
9 범행 중 피해자에 대한 범행도구 사용 여부	피해자 제압 위협 과정에서 흉기 등의 도구 사용인 경우
10 범행 중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압시도 여부	제갈, 얼굴가림, 손발 등의 결박, 폭언 등 위협, 강압적인 신체 이용인 경우
11 범행 전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은폐시도 여부	두건, 복면, 마스크, 모자, 장갑 등 은폐물품 사용인 경우
12 성폭력시 특이한 성적습관 시도 여부	가학성에, 관음증, 피학대음란, 그룹섹스, 스토킹, 성전환자, 동성애, 양성애, 복장도착, 소아기호, 음란전화, 근친강간, 물품음란, 상대 앓가림인 경우
13 성폭력시 성적대화 시도 여부	피해자 칭찬, 피해자알고 있다는 암시, 피해자에게 성적인 맨트하기, 피해자 신원하여 질문하기 등인 경우
14 2회 이상의 과격한 폭력사용 여부	신체나 도구 이용하여 최소 2회 이상 상해를 가한 경우
15 성폭력 후 피해자의 물품 절취 여부	피해자의 것임을 알 수 있는 물품, 개인적인 물품으로 환전될 수 없는 물품, 피해자의 것임을 알 수 없는 물품 절취인 경우
16 도주전 동영상 촬영등의 특이한 종결방법시도 여부	강간 후 사진촬영 등 신고방지 협박, 결박하기, 피해자셋김인 경우

각 군집에 대한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집 1은 범죄의 패턴이 연쇄성, 가해자와 피해자가 비면식 관계, 피해자가 성인, 발생장소와 피해자 주거지가 동일, 야외가 아닌 장소, 유인·속임수 외의 방법, 침입시도, 범행도구사용, 제압 적극성, 직접 은폐시도, 강간 시 성적대화 시도, 도주 중 도난품이 있는 특성을 보인 대표적인 집단이다. 군집 2는 비연쇄성, 새벽 시간 외 발생, 성인대상, 야외가 아닌 장소, 유인·속임수가 아닌 방법, 은폐 후, 피해자 주거지 침입, 범행도구 사용, 적극적 제압시도, 특이 성적습관 없고, 성적대화 시도 없고, 도난품 있는 특성을 보였다. 군집 3은 연쇄성, 새벽발생, 피해자와 비면식관계, 피해자가 성인, 범행 장소가 피해자주거지가 아닌 곳, 비침입, 야외 현장 발생, 범행도구 사용, 적극적 제압 시도, 특이한 성적습관 없고, 성적 대화시도, 과격한 폭력 없고, 도난품과 특이한 종결방법이 없는 특성을 보인 전형적인

집단이였다.

군집 4는 비연쇄성, 새벽시간대 발생, 성인대상, 야외가 아닌 곳, 유인·속임수 외의 방법, 비은폐, 피해자 주거지 침입, 범행도구 비사용,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제압시도, 비특이적 성적습관, 성적 대화시도 없으며, 도난품과 특이한 종결방법이 없는 집단이다. 군집 5는 범죄의 패턴이 연쇄성, 새벽 외의 시간대 발생, 가해자와 피해자가 비면식 관계, 피해자가 성인, 발생장소가 피해자 주거지가 아닌 곳, 비은폐, 비침입, 범행도구 비사용, 적극적 제압시도, 비특이적 성적습관, 성적 대화시도와 특이한 종결방법이 없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군집 6은 비연쇄성, 새벽 외의 시간대 발생,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범행장소가 피해자 주거지 아닌 곳, 비은폐, 비침입, 속임수·유인 방법, 범행도구비사용, 적극적 제압시도, 2회 이상의 과격한 폭력 동반, 성적대화 비시도, 도난품과 특이종결이 없는 특성을 보였다.

표 2. 군집 유형별 16개 관련변인 차이

군 집	범행 유형		범행 시간		피해자 선택				범행 장소				범행 수법					
	연쇄		범행 새벽		피해자 면식		피해자 성인		발생장소와 피해자주거지		야외		유인·속임수		침입		범행도구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1	15(100)	0(0)	10(66.7)	5(33.3)	0(0)	15(100)	15(100)	0	14(93.3)	1(6.7)	0(0)	15(100)	0	15(100)	14(93.3)	1(6.7)	15(100)	0
2	2(16.7)	10(83.3)	2(16.7)	10(83.3)	9(75)	3(25)	12(100)	0	12(100)	0(0)	3(25)	9(75)	3(25)	9(75)	12(100)	0	11(91.7)	1(8.3)
3	2(66.7)	1(33.3)	3(100)	0(0)	0(0)	3(100)	2(66.7)	1(33.3)	1(33.3)	2(66.7)	3(100)	0(0)	0	3(100)	0	3(100)	1(33.3)	2(66.7)
4	3(15.8)	16(84.2)	19(100)	0(0)	8(42.1)	11(57.9)	18(94.7)	1(5.3)	14(73.7)	5(26.3)	2(10.5)	17(89.5)	7(36.8)	12(63.2)	14(73.7)	5(26.3)	3(15.8)	16(84.2)
5	10(62.5)	6(37.5)	2(12.5)	14(87.5)	1(6.3)	15(93.8)	12(75)	4(25)	2(12.5)	14(87.5)	5(31.3)	11(68.8)	7(43.8)	9(56.3)	1(6.3)	15(93.8)	2(12.5)	14(87.5)
6	2(4.3)	44(95.7)	0(0)	46(100)	19(41.3)	27(58.7)	0	46(100)	8(17.4)	38(82.6)	25(54.3)	21(45.7)	34(73.9)	12(26.1)	2(4.3)	44(95.7)	3(6.5)	43(93.5)

군 집	범행 수법				성적 특이성				종결 과정					
	제압 적극		직접 은폐시도		특이 성적습관		대화 시도		과격한 폭력 2회 이상		도난품		특이 종결방법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1	13(86.7)	2(13.3)	14(93.3)	1(6.7)	10(66.7)	5(33.3)	12(80)	3(20)	5(33.3)	10(66.7)	13(86.7)	2(13.3)	8(46.7)	8(53.3)
2	12(100)	0	10(83.3)	2(16.7)	3(25)	9(75)	2(16.7)	10(83.3)	6(50)	6(50)	8(66.7)	4(33.3)	5(41.7)	7(58.3)
3	3(100)	0	3(100)	0	1(33.3)	2(66.7)	0	3(100)	0	3(100)	1(33.3)	2(66.7)	0	3(100)
4	15(78.9)	4(21.2)	1(5.3)	18(94.7)	0	19(100)	1(5.3)	18(94.7)	15(78.9)	4(21.1)	6(31.6)	13(68.4)	0	19(100)
5	15(93.8)	1(6.3)	1(6.3)	15(93.8)	6(37.5)	10(62.5)	6(37.5)	10(62.5)	8(50)	8(50)	8(50)	8(50)	0	16(100)
6	43(93.5)	3(6.5)	0	46(100)	23(50)	23(50)	4(8.7)	42(91.3)	29(63)	17(37)	4(8.7)	42(91.3)	3(6.5)	43(93.5)

표 3. 군집 유형별 프로파일

군집 유형	내용
1 연쇄성 성적특이 강도강간형	연쇄성, 비면식, 성인대상, 발생장소와 피해자 주거지가 동일, 야외가 아닌 장소, 유인·속임수 외의 방법, 주거지 침입, 범행도구사용, 적극적 제압시도, 직접 은폐시도, 강간 시 성적대화 시도, 도주 중 도난품이 있는 범행 특성
2 비연쇄성 침입 강도강간형	비연쇄성, 새벽시간 외 발생, 성인대상, 야외가 아닌 장소, 유인·속임수가 아닌 방법으로 접근, 은폐 후 범행, 피해자주거지 침입, 범행도구 사용. 적극적 제압시도, 특이 성적습관과 성적대화 시도 없고, 도난품 있는 범행 특성
3 연쇄성 야외현장 강간형	연쇄성, 새벽시간대 발생, 비면식, 성인대상, 범행 장소가 피해자주거지가 아닌 곳, 비침입, 야외발생, 범행도구사용, 적극적 제압시도, 비특이적 성적습관, 성적 대화시도, 2회이상 폭력 없으며 도난품과 특이한 종결방법이 없는 범행 특성
4 비연쇄성 침입 강간형	비연쇄성, 새벽시간대 발생, 성인대상, 야외가 아닌 곳, 유인·속임수 외의 방법, 비은폐, 피해자주거지 침입, 범행도구 비사용, 적극적 제압시도, 비특이적 성적습관, 성적 대화시도 없으며 도난품과 특이종결방법이 없는 범행 특성
5 연쇄성 야외현장 강도강간형	연쇄성, 새벽시간 외 발생, 비면식, 성인대상, 범행장소가 피해자주거지가 아닌 곳, 비은폐, 비침입, 범행도구 비사용, 적극적 제압시도, 비특이적 성적습관, 성적 대화시도와 특이한 종결방법 없는 범행 특성
6 비연쇄성 야외현장 아동청소년 강간형	비연쇄성, 새벽시간 외의 발생, 아동·청소년대상, 범행장소가 피해자 주거지 아닌 곳, 비은폐, 비침입 속임수·유인 방법, 범행도구 비사용, 적극적 제압시도, 2회이상의 과격한 폭력 동반, 성적대화 비시도, 도난품과 특이종결이 없는 범행 특성

표 4. 군집 유형별 기본특성간 차이

	1군집		2군집		3군집		4군집		5군집		6군집		F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강간장소 - 가해자주거지거리	.82	2.42	3.40	4.63	2.97	3.73	3.44	4.10	3.12	3.59	2.32	3.83	1.36
강간장소 - 피해자주거지거리	1.58	3.15	2.23	3.53	1.38	3.81	.86	1.13	.04	.18	0	0	1.56
피해자 연령	11.82	2.37	12.57	2.87	26.17	9.15	20.03	3.04	25.46	6.20	31.78	9.63	28.11***
가해자 연령	42.57	14.25	36.25	15.08	32.17	9.15	29.45	6.31	33.77	7.85	31.42	8.20	2.76*
최종 학력	11.04	2.37	11.2	3.43	11.47	3.26	12.63	1.96	12.22	2.21	12.57	2.50	.891
음주횟수	2.90	2.56	1.72	1.52	3.26	2.37	2.77	2.52	3.19	1.56	3.00	2.88	1.25
총 전과	3.95	3.86	4.00	4.20	2.64	3.31	2.90	3.64	4.50	2.83	4.00	2.30	.64
체중	69.43	12.09	72.70	12.97	63.00	7.75	75.18	6.96	69.44	10.46	70.86	15.36	2.08*
신장	172.1	5.70	171.8	8.20	170.29	5.88	174.36	5.48	171.94	3.91	172	4.08	.62
강간횟수	5.76	11.53	3.40	11.05	2.18	1.77	2.82	3.94	11.83	12.93	2.71	3.30	2.44*
강제추행횟수	3.76	11.12	1.90	2.02	.06	.24	2.55	3.61	1.22	2.10	0	0	1.06
피해자 수	2.10	2.58	1.30	.73	1.65	1.27	3.36	3.23	13.00	14.23	2.57	3.35	8.32***

Note 1. Results of Scheffe Analysis after MANOVA (Wilks's Lamda=.147, F(60, 364)=3.07, P<.000)

Note 2. * : p<.05, ** : p<.01, *** : p<.000. Means with different subscripts differ at .05

표 4와 5는 군집 유형과 기본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16개의 관련변인들 중 상대적으로 다른 변인보다 범행현장과 피해자에게서 뚜렷한 특성으로 나타나는 변인인 연쇄성, 피해자연령, 강간 시 성적특이성, 피해

품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6개 군집에 대해 유형화를 시켰다. 그리고 각 군집에 대해 강간장소와 가해자주거지간 거리, 강간장소와 피해자주거지간 거리, 피해자연령, 가해자연령, 최종학력, 음주횟수, 총 전과, 체중,

표 5. 기본특성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가해자주거지	1											
2 피해자주거지	.065	1										
3 피해자연령	.106	-.108	1									
4 가해자연령	-.051	.117	-.185	1								
5 최종학력	.117	-.014	.079	-.138	1							
6 음주횟수	-.002	-.162	.176	.051	.132	1						
7 총 전과	.151	-.002	.075	.275(**)	-.146	.157	1					
8 체중	.099	.179	-.130	.048	.152	-.202(*)	.100	1				
9 신장	.134	.171	.015	-.109	.211(*)	-.098	.051	.460(**)	1			
10 강간횟수	.012	.017	.042	.027	.129	.128	-.005	.159	.130	1		
11 강제추행횟수	-.093	.077	-.213(*)	.151	.086	-.074	.062	.053	.075	.021	1	
12 피해자수	.109	-.110	.160	.007	.151	.095	.035	.005	.006	.574(**)	.198(*)	1

Note 1. Numbers in each cell indicates correlation coefficients

Note 2. * : p<.05, ** : p<.01, *** : p<.000. Means with different subscripts differ at .05

표 6. 군집별 사회·인구학적 특징

군집	변인	사회·인구학적 특징			직업유형(%)
		체격(%)	결혼(%)	동거인(%)	
1	왜소(40)	미혼(53.3)	배우자(46.7)	무직(33.3)	
	건장(26.7)	기혼(26.7)	독거(26.7)	생산기능(20)	
	보통(20)	동거(13.3)	친부모/형제(20)	서비스직(13.3)	
	비만(13.3)	재혼이상(6.7)	친모(6.7)	단순노동(13.3)	
2	보통(58.3)	미혼(66.7)	배우자(41.7)	무직(41.7)	
	왜소(16.7)	동거(16.7)	독거(33.3)	서비스직(16.9)	
	건장(16.7)	기혼(8.3)	친부모/형제(8.3)	생산기능(16.9)	
	비만(8.3)		친부(8.3)	단순노동(8.3)	
3	보통(66.7)	미혼(100)	독거(66.7)	단순노동(66.7)	
	비만(33.3)		형제(33.3)	판매직(33.3)	
4	보통(52.6)	미혼(63.2)	배우자(42.1)	무직(31.6)	
	왜소(36.8)	기혼(21.1)	독거(26.3)	서비스직(21.1)	
	건장(10.5)	별거(5.1)	친부모/형제(15.8)	단순노동(15.8)	
		이혼/사별(5.1)	친부(10.5)	생산기능(15.8)	
5	왜소(31.3)	미혼(62.5)	부모(62.6)	무직(43.8)	
	보통(31.3)	이혼(18.8)	배우자(18.8)	학생(18.8)	
	건장(31.3)	기혼(12.5)	독거(12.5)	단순노동(12.5)	
	비만(1.6)	이혼후동거(6.3)	친부(6.3)	생산기능(12.5)	
6	왜소(30.4)	미혼(52.2)	부모(34.9)	단순노동(21.7)	
	보통(30.4)	기혼(23.9)	독거(30.4)	무직(19.6)	
	건장(26.1)	재혼(8.7)	친부모/형제(17.4)	생산기능(15.2)	
	비만(13)	이혼후동거(6.5)	친모(10.9)	학생(15.2)	
	동거(2.2)	친부(2.2)	사무직(10.9)		
	별거(2.2)	기타(4.4)			

신장, 강간 횟수, 강제추행 횟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고 Scedge 방법으로 사후비교하였고 변인간 상관관계를 통해 각 기본특성들 간 관계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군집유형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피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 체중, 강간 횟수, 피해자 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군집 1과 군집3, 군집1과 군집4, 군집1과 군집6, 군집2와 군집3, 군집2와 군집4, 군집2와 군집6, 군집4와 군집6은 피해자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군집1과 군집5, 군집2와 군집5, 군집3과 군집5, 군집4와 군집5, 군집5와 군집6은 피해자 연령과 피해자 수에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신장과 최종학력, 총 전과와 가해자 연령간에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강제추행 횟수와 피해자 연령간에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6은 군집유형에 따른 기본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가해자의 체격, 결혼여부,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 변인에 대해서 군집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체격($x^2=15.06$ $df=15$ $p=.446$), 결혼($x^2=27.510$ $df=30$ $p=.596$), 동거인($x^2=45.372$ $df=45$ $p=.456$), 직업유형($x^2=43.170$ $df=40$ $p=.337$)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혼은 대부분 미혼이 많았으나 군집 3이 1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군집6이 52.2%

표 7. 6가지 군집별 음주, 전과특성 비교

군집	변인	음주 특성		전과 특성	
		음주 후 관련 행동(%)		주요전과(%)	
1	거리방향술집전전(33.4)			성관련(46.7)	
	여성몰래흡취(25)			강·절도(26.7)	없음(46.7)
	거리 방향(16.7)			폭력·상해(13.3)	있음(53.3)
	계속 술집 전전(16.7)			기타(13.3)	
2	귀가 후 취침(16.7)				
	귀가후취침(22.2)			강·절도(40)	없음(66.7)
	폭력(22.2)			폭력·상해(40)	있음(33.3)
	계속 술집 전전(22.2)			성관련(20)	
3	성적충동(자위등)(22.2)				
	귀가 후 취침(22.2)				
4	성적행위(50)			강·절도(50)	없음(100)
	귀가후취침(50)			폭력·상해(50)	
5	폭력(29.4)			폭력·상해(31.3)	
	성적행위(23.5)			성관련(25)	없음(57.9)
	귀가후취침(17.6)			강·절도(12.5)	있음(42.1)
	말이 많아짐(11.8)			기타(25)	
6	거리방향술집전전(50)			도교법등(35.7)	
	성적행위(16.7)			강·절도(21.4)	없음(56.3)
	기타(25)			폭력·상해(14.3)	있음(43.7)
				성관련(14.3)	
6				사기(7.1)	
	귀가후취침(45)			도교법등(33.4)	
	성적충동(자위등)(15)			성관련(27.8)	없음(69.6)
	폭력(12.5)			폭력·상해(19.4)	있음(30.4)
6	계속술집전전(12.5)			강·절도(13.9)	
	여성몰래흡취(2.5)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군집에서 배우자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직업유형은 군집 5는 단순 노동이 21.7%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군집은 무직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은 군집유형에 따른 음주, 전과특성 교차분석한 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음주 후 행동($\chi^2=74.987$ $df=50$ $p=.013$)은 군집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주요 전과($\chi^2=23.04$ $df=30$ $p=.814$), 유사전과($\chi^2=28.44$ $df=25$ $p=.288$)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군집 1은 2-3회 혹은 3-5회가 각각 33.3%로 동일한 전과 횟수를 보였고 46.7%가 성범죄가 주요한 전과로 보였으며, 53.3%가 유사 전과가 있었다. 군집 2는 33.4%가 2-5회

의 전과 횟수를 보였고 40%가 강·절도로 주요한 전과로 보였으며 유사전과는 66.7%가 있었다. 군집 3은 66.7%가 평균 2-3회의 전과를 보였고 50%가 강·절도 전과로 주요 했으며 100% 유사전과는 없었다. 군집 4는 36.8%가 1회의 전과 횟수를 보였고 50%가 폭력·상해 전과로 주요했으며 42.1%가 유사전과가 있었다. 군집 5는 25%가 1회 혹은 2-3회로 동일한 전과횟수를 보였고 35.7%가 도교법 등 기타 전과로 주요했으며 43.7%가 유사전과가 있었다. 군집 6은 19.6%가 2-3회의 전과횟수를 보였고 27.8%가 성관련 전과로 주요했으며 30.4%가 유사전과가 없었다.

표 8. 6가지 군집별 성격유형 및 성격특성 비교

변인 군집	성격 유형				성적 특성		
	평소생각(%) 다중응답	콤플렉스(%) 다중응답	PAI척도(%) 다중응답	성격유형(%) 다중응답	정신과이력(%) 다중응답	성적습관(%)	성관련 수집품(%)
1	금전(46.7)	외모(36.4)	BOR(36.4)	내향성(73.3)		관음증(46.7)	파일(7.7)
	섹스(26.7)	건강장애(36.4)	ANT(36.4)	의존회피(46.7)	양극성정동(7.1)	독신자(16.7)	사진(7.7)
	정신심리(26.7)	경제(18.2)	ALC(27.3)	충동성(26.7)	알코올중독(14.3)	가학성애(16.7)	비디오(7.7)
	여자(13.3)	심리성격(18.2)	DEP(18.2)	외향성(26.7)		은란전화(16.7)	
	일/학업(13.3)	가정환경(18.2)	AGG(18.2)				
			SUI(18.2)				
2	금전(41.7)	전과(27.3)	ANT(42.9)	내향성(50)		관음증(16.7)	파일(20)
	일·학업(33.3)	외모(18.2)	ALC(42.9)	외향성(50)	알코올중독(8.3)	음주후성관계(8.3)	비디오(10)
	여자(16.7)	경제(18.2)	BOR(28.6)	반사회성(25)			
	섹스(16.7)	가정환경(18.2)	NON(28.6)	충동성(66.7)			
	진로(16.7)	학력/능력(18.2)	AGG(28.6)				
3	섹스(66.7)	외모(33.3)	ANT(100)	내향성(66.7)	반사회적인격장애(3.3)	가학성애(33.3)	파일(50)
	여자(33.3)	성기능(33.3)	ARD(50)	충동성(66.7)			
	진로(33.3)	가정환경(33.3)		공감결여(66.7)			
4	금전(40)	외모(46.7)	DEP(50)	내향성(63.2)	알코올중독(15.8)		파일(17.6)
	정신심리(26.7)	성격심리(20)	ALC(33.3)	외향성(31.6)	충동조절장애(10.5)	없음	옷(5.9)
	섹스(30)	경제(20)	ANX(16.7)	의존회피(31.6)			
	가족(13.3)	학력/능력(13.3)	PAR(16.7)	충동성(15.8)	양극성정동(10.5)		
	신체건강(13.3)	가정환경(13.3)	BOR(16.7)	공감결여(15.8)			
5	섹스(50)	성기능(36.4)	ANT(37.5)	내향성(50)	충동조절장애(12.5)	소아기호(18.8)	파일(21.4)
	가족(28.6)	성격심리(36.4)	ALC(25)	외향성(50)	정신지체(6.3)	가학성애·노출증(12.5)	책(2.2)
	금전(14.3)	건강장애(18.2)	DEP(25)	충동성(50)	주의력결핍(6.3)	노출증(6.3)	
	유흥(14.3)	외모(9.1)		의존회피(18.8)	알코올중독(6.3)		
6	섹스(33.3)	성격심리(19.5)	DEP(27.8)	내향성(63)	알코올중독(13.3)	소아기호(19.6)	파일(21.7)
	정신심리(20)	건강장애(19.5)	ANT(22.2)	충동성(34.8)	충동조절장애(11.1)	습관성자위(10.9)	책(2.2)
	금전(13.3)	학력/능력(19.5)	BOR(22.2)	의존회피(32.6)	양극성정동(8.9)	상대얕가림(6.5)	
	여자(13.3)	외모(17.1)	SUI(22.2)	외향성(28.3)	주의력결핍(4.4)	가학성애(6.5)	
	가족(13.3)	경제(5.5)	SCZ(16.7)				

표 8은 군집유형에 따른 성격유형과 성적특성 변인들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평소생각, 콤플렉스, PAI 척도, 성격유형, 정신과이력은 다중응답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성적습관, 성관련수집품 변인에 대해서 군집별 교차분석을 하였다. 교차분석결과, 성적습관($\chi^2=102.74$ $df=50$ $p=.000$)과 성관련수집($\chi^2=22.37$ $df=25$ $p=.014$)은 군집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중응답 분석결과,

군집 1, 2, 4는 각각 46.7%, 41.7%, 40% 순으로 금전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았고 군집 3, 5, 6은 각각 66.7%, 50%, 33.3% 순으로 섹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콤플렉스의 경우, 군집 1, 3, 4는 각각 36.4%, 33.3%, 36.4% 순으로 외모에 대해 가장 많은 콤플렉스를 보였고 군집 2는 27.3%가 전과경력에서 군집 5는 36%가 성기능 장애에서, 군집 6은 19.5%가 우

표 9. 6가지 군집별 가정환경, 범죄행동특성 비교

군집	가정환경				범죄행동				
	형태(%)	양육(%)	학대경험(%)	피학대경험(%)	범행동기(%)	스트레스 원인(%)			
1	양친(60)	보통(50)	없음(100)	없음(71.4)	성욕(40)	실직(28.6)			
	편부모(40)	방임(40) 엄격(6.7)		신체학대(28.6)	금품·성욕(33.3) 스트레스·성욕(20)	성욕구좌절(21.4)			
2	양친(75)	방임(50)	없음(87.5)	없음(72.7)	금품·성욕(33.3)	실직(27.3)			
	편모(16.7)	보통(41.7)	신체학대(12.5)	신체학대(18.2)	스트레스·성욕(16.7)	경계문제(27.3)			
	친척(8.3)	엄격(8.3)	성학대(9.1)	성학대(9.1)	복수·성욕(16.7) 순수금품(16.7)				
3	양친(33.3)	방임(33.3)	없음(66.7)	없음(50)	성욕(66.7)	이혼·별거(33.3)			
	편부(33.3)	보통(33.3)					신체학대(50)	스트레스·성욕(33.3)	이별(33.3)
	고아원(33.3)	엄격(33.3)							
4	양친(63.2)	방임(42.1)	없음(100)	없음(50)	성욕(68.4)	실직(26.7)			
	편모(10.5)	엄격(31.6)		신체학대(44.4)			스트레스·성욕(21.1)		
	친척(10.5)	보통(26.3)		신체/언어학대(5.6)					
	편부(5.8)								
5	양친(62.5)	방임(43.8)	없음(71.4)	없음(71.4)	성욕(62.5)	성욕구좌절(20)			
	편부모(25)	엄격(31.3)	성학대(14.3)	성·신체학대(28.6)	스트레스·성욕(12.5)	이혼·별거(20)			
	친척(12.5)	보통(25)	신체학대(14.3)		정신질환·스트레스(12.5)				
6	양친(65.2)	보통(54.3)	없음(80.4)	없음(80.4)	성욕(73.9)	성욕구좌절(27.5)			
	편모(19.6)		신체학대(8.7)	신체학대(8.7)	스트레스·성욕(21.7)	실직(12.5)			
	편부(10.9)		성학대(6.5)	성/신체학대(4.3)	정신질환·성욕(4.3)				
	고아원(2.2)		엄격(10.9)	성/신체혼합(4.3)					
친척(2.2)									

유부단함 등의 성격심리 등에서 가장 높은 콤플렉스를 느꼈다. 개인성격검사(PAI;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척도의 경우, 다중응답분석한 결과, 군집 1, 2, 3, 5는 반사회성 인경장애(ANT; Antisocial)에서 각각 36.4%, 42.9%, 100%, 37.5% 순으로 가장 높은 임상 증상을 보였고 군집 4, 6은 우울증(DEP; Depression)에서 각각 50%, 27.5% 순으로 가장 높은 임상 증상을 보였다. 검거 직전까지의 정신과 경력은 군집 6이 가장 많았고(35.6%) 군집 2는 가장 적게(8.3%)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군집 1은 46.7%가 관음증 등의 특이 성적습관이 있었고 그 외의 경우 특이한 성적습관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더 많았다. 성관련 수집품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수집 시 대부분의 군집에서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수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9는 6가지 군집에 따른 가정환경과 범죄행동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양육형태와 특성, 학대와 피학대 경험, 범행동기, 개인스트레스에 대해 교차분석 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양육형태($\chi^2=27.790$ $df=20$ $p=.114$), 양육특징($\chi^2=12.15$ $df=10$ $p=.275$), 피학대경험($\chi^2=27.82$ $df=20$ $p=.113$), 학대경험($\chi^2=21.0$ $df=20$ $p=.397$), 개인스트레스($\chi^2=47.45$ $df=50$ $p=.576$)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범행동기($\chi^2=80.01$ $df=35$ $p=.000$)는 군집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형태는 대부분 군집에서 양친이나 편부모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고 양육 방식은 보통과 방임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학대와 피학대의 경우, 군집 3은 33.3%가 성적인 학대를 한 경험이 있었고, 신체적인 학대를 받은 경우는 44.4%로 가장 높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군집 4는 가해자가 학대를 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44.4%는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집 6은 8.7%가 신

체적인 학대를 받았고, 8.7%가 신체적인 학대를 가한 경험이 있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범행은 대부분 성욕, 금품과 관계된 성욕, 스트레스와 관계된 성욕이 대부분의 주요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1, 2, 4는 범행당시 주로 실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 비율은 각각 40%, 33.3%, 66.7% 순으로 나타났다. 군집 5, 6은 이혼, 별거, 이별,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성욕구 좌절 혹은 불만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 비율은 각각 20%, 27.5% 순으로 나타났다. 범행 장소와 피의자 주거지 간 거리의 경우, 군집 2, 3, 4는 반경 500m 이내에 피해자 주거지 존재 비율이 각각 41.7%, 66.6%, 36.9% 순으로 나타났고, 군집 6은 범행 장소가 가해자 주거지인 비율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군집 1은 1km에서 4km사이 가해자 주거 비율이 40%, 군집 5는 3km이상인 다른 동, 구, 시에서 가해자가 주거한 비율이 37.5%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사건 발생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수사상 필요한 프로파일링 자료를 객관적인 수치화로 과학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Pathrick(2003)은 범죄현장에 남겨진 범죄자의 증거와 행동 양태를 기초로 범죄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격과 행위적 단서를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을 범죄자 프로파일링이라고 하였다. 즉 범죄자와 피해자, 범죄현장, 범행도구의 선정, 사용한 말씨 등과 범죄자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범죄자를 추론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권창국(2002)은 프로파일링 증거 또는 수사기법이란 범인의 범행현장행동 분석을 통해 범죄자의 성격, 행동패턴, 직업, 학력, 거주지 등 범인과 일정한 관련성 있는 각종 인구나사회학적 특정요소를 추출,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용의 대상 및 용의자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수사기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 111명을 대상으로 면담과 심리검사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 범죄 집단을 유형화하

였다. 피해자와 범행현장의 특징 등 16개 관련변인을 기준으로 6개 군집 유형으로 나누었고 각 유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다양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현장과 피해자, 범죄수법에서 나타나는 특정요소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용의자를 군집화 시킬 수 있었고 이미 얻어진 군집의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해 용의자의 정보를 추출 해 낼 수 있었다. 물론 각 유형 간에 뚜렷한 가해자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례수의 보완과 다양한 변인의 통계를 통해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범죄현장에서 수사관이 현장과 피해자 변인에서 유용한 용의자의 특성을 추론해 낼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설명력이 풍부하면서도 차별적인 변인을 중심으로 군집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들 간에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요인을 찾아내는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Bennett와 Hess(1994)의 연쇄강간범의 프로파일링 과정 중 용의자 특정 단계에서는 연령, 습관적인 행동, 전과, 성격, 직업, 학력, 거주지 등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지속성이 있는 용의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추출하여 제공할 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각 군집에 대해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성범죄 집단을 범행현장과 피해자로부터 가장 뚜렷한 특성이라고 여겨지는 변인들인 범행현장(2개), 피해자 관련(2개), 성행위 관련(2개), 범행수법 관련(10개) 등 총 4개 범주, 16개의 관련변인을 기준으로 6개 군집으로 유형화하였다.

군집 1은 가해자의 평균 나이가 33.3(6)세였고 학력은 중졸에서 고졸 비율이 많았고 신체적인 체격은 40%가 왜소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53%였고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은 용접근무자, 조명설치, 목수 등의 생산 기능직이 많았다. 주 2-5회로 비교적 음주 횟수가 많았고 음주 후 거리를 방황하거나 여성을 몰래 훑쳐보는 등의 습관적인 성적행동을 보였다. 검거가 되기 전까지 평균 4.8(2.4)회의 전과경력이 있었고 전과 중 성관련 범죄가 가장 많았고 유사 전과도 전체 50% 가량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과 섹스에 대한 생각을 평소 많이 하는 편이었고 마른 몸,

대머리, 작은 키 등의 외모와 건강 장애에 콤플렉스를 느꼈으며 경계선 성격과 반사회성 성격 장애 증상을 가장 많이 보였다. 전체 53.3%의 성적 습관자들 중 관음증이 가장 많았고 23.1%가 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정형태는 부모가 생존하고 같이 거주하였고, 보통(50%), 방임(40%) 방식으로 양육했으며 스스로 학대를 한 경험은 없는 반면 타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은 28.6%가 있었다. 주로 성욕 자체나, 침입 후 금품절취 중 성욕을 느낀 기회적 강간 유형이 많았고 범행 전 실직과 이혼 등 이차적 성욕구 불만족에서 스트레스를 느꼈다. 가해자는 범행 장소에서 1-2km 이내 거주지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군집 2는 가해자의 평균 나이가 32.7(8.2)세였고 중졸에서 고졸이하, 고졸에서 대졸이하가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나 교육 수준이 다른 군집에 비해 다소 높았고 보통 수준의 체격이 많았다. 결혼 상태는 미혼상태에서 독거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결혼 후 동거인이 있을 경우 배우자 함께 거주하였고 직업은 무직, 서비스직 순이었다. 평균 주 3-5회의 음주 횟수를 보였고 음주 후에는 집으로 귀가하여 잠을 자거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평균 3.7(4.5)회의 전과횟수를 보였고 전과 중 강·절도와 폭력·상해가 동일한 비율로 가장 많았으며 유사 전과 존재 비율은 전체 33.3%였다. 돈과 일, 학업에 대한 생각이 많았고 범죄경력, 외모 순으로 콤플렉스를 느꼈으며, PAI 척도 중 반사회성 성격과 알코올 관련 장애 증상을 가장 많이 보였다. 8.3%만이 정신과 진단 및 치료 경력이 있었고 전체 25%의 성적습관을 보인 자들 중 관음증 행동이 가장 많았고 이들 중 20%가 파일형식으로 성관련 동영상물을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태는 양친 생존한 상태에 함께 거주하였으나 주로 방임 상태에서 양육이 이루어졌고 각각 12.5%가 신체적인 학대 경험을 당하거나 신체적인 학대를 타인에게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 절취 목적으로 침입하여 강간이 이루어지거나와 스트레스 누적과 관련된 성욕이 주요 범죄 동기였으며 실직과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가장 많이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41.7%가 범행 장소로부터 500m 이내 거주했다.

군집 3은 가해자의 평균 나이가 29.3(9)세로 다른 군집유형에 비해 가장 어렸고 중졸에서 고졸이하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평균 신장 170 cm, 체중 73.3 kg의 보통 수준의 체격 조건을 보였고 미혼이 전부였으며 66.7%가 혼자 살았고, 직업으로는 공장 종업원 등의 단순 노동이 가장 많았다. 주 6회 이상의 높은 음주 횟수와 음주 후에는 자위행위나 파티시 등의 개인적인 성적행위와 귀가 후 개인용무 등의 사후 습관적인 행위를 보였다. 평균 5.6(2.5)회의 전과경력을 보였고 전과는 강·절도와 폭·상해가 동일한 비율로 가장 많았고 유사전과는 전혀 없었다. 66.7%가 평균 2-3회의 전과를 보였고 이들 중 50%가 강·절도 전과가 가장 많았으며 유사전과는 전혀 없었다. 가해자는 평소 성과 관련된 섹스, 여자 순으로 생각을 많이 했고 외모와 성기능 장애에서 콤플렉스를 느꼈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와 불안관련 장애 임상 증상을 보였고, 이들 중 33.3%만이 정신과 진단 및 치료 경험이 있었다. 향문성교, 음부이물질 삽입 등의 가학성에는 33.3%, 성관련 자료 수집 경험은 5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태는 양친과 함께 거주하거나 모친은 가출 혹은 이혼 상태에 부친과 지내는 경우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들 중 성관련 학대를 받은 경험이 33.3%, 신체 학대를 받은 경험이 50%로 군집유형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모두 순수하게 성욕에 끌려 범행을 했고 이혼이나 별거, 이혼 등에 의해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느꼈으며, 가해자 중 66.6%가 500m 이내 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4는 가해자의 평균 나이가 33(9.8)세였고 중졸에서 고졸이 3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체격 조건은 52.6%가 평균 신장 169 cm, 체중 64.2 kg의 보통이었다. 미혼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기혼 이상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거나 미혼상태에서 독거하며 직업 없이 무직인 상태가 많았다. 전체 31.6%가 전과 경력이 있었고 평균 3.6(3.1)회의 전과횟수를 보였으며 이들 중 50%가 폭력·상해 전과가 가장 많았고 42.1%가 유사한 전과가 있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심리 등의 기능상의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을 했었고, 신체적 외모와 성격심리에서 콤플렉스를 많이 느꼈다. 우울증과 알코올 관련 장애 증세를 보였고, 성적

습관은 없었지만 17.6%가 성관련 동영상이나 파일을 수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태는 양부모와 함께 거주한 경우가 많았으나 방임상태가 많았고 42.1%가 학대경험 없이 성장한 반면 44.4%가 신체적인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성욕, 스트레스에 의한 성욕이 범행 동기였고 실직, 이혼·별거 순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으며 가해자는 범행 장소로부터 500m 이내에 36.9%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5는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29.8(9.5)세였고 고졸에서 대졸이하가 43.8%로 학력수준이 가장 높았고, 체격은 왜소하거나 보통인 경우가 비슷한 비율로 많았다. 미혼에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컸고 직업상 무직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주 2회 이하의 비교적 낮은 음주 횟수를 보였고 음주 후 거리를 방황하며 술집을 전전하였다. 평균 4.6(5.4)회의 전과비율을 보였고 전과는 도교법, 사기 등의 비강력범죄가 가장 많았으나 43.7%가 유사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섹스, 가족구성원 등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조루, 성기크기, 발기문제 등의 성기능과 성격심리 등에 콤플렉스를 가졌으며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알코올관련 장애가 주요한 증세로 나타났다. 18.7%가 정신과 진단과 치료 경력이 있었고, 37.5%의 성적 습관자들 중 소아기호증 존재비율이 18.8%, 파일 등의 성관련수집 경험은 21.4%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태는 62.5%가 양친에 의해 길러졌고, 43.8%가 방임상태에서 양육을 받았으며 타인에게 성학대를 가한 경우는 6.7%, 학대를 받은 경우는 28.6%였다. 단순한 성욕, 스트레스 누적과 관련된 성적 욕구가 주요한 범행동기로 작용했고, 생활 속에서 성욕구 좌절, 이혼·별거 순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했고 가해자의 41.3%가 범행장소로부터 3km 이상 떨어져 다른 시나 도에 거주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6은 가해자의 평균 연령이 40.4(13.2)세로 가장 높은 연령대를 보였고 중졸에서 고졸이하가 45.7%로 평이하거나 중졸이하의 낮은 교육수준을 보였다. 171cm 이하의 왜소하거나 보통 체격조건이 많았으며 미혼인 상태에서 부모와 거주하는 비율이 많았고 공장종업원, 고물수집상 등의 단순 노동이 나타났다. 주 2회 이하의 낮은 음주 비율을 보였고 음

주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거나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의 추가적인 특이 행동은 없었다. 평균 3.8(3.8)회의 전과 횟수를 보였고 이들 중 성관련 범죄가 가장 많았고 30.4%만이 유사한 전과가 있었다. 섹스와 정신심리 등에 대해 평소 생각이 많았고 자신의 성격과 건강기능 장애에 대해 콤플렉스를 느꼈다. 우울증, 반사회적 성격장애 순으로 임상적인 증상을 보였고 50%의 성적습관을 가진 자들 중 19.6%가 소아기호증을 보여 아동과 관련된 성적 특이성을 나타냈으나 23.9%만이 성관련 자료를 수집한 경험이 있었다. 양친 혹은 편모 가정형태를 띠었고 보통 상태에서 양육을 받았으며 타인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가한 경우가 8.7%, 받은 경우는 8.7%로 나타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순수 성욕과 스트레스 누적 관련 성욕이 주요 범행동기였고 주로 성욕구좌절과 실직 등에 의해 스트레스를 느꼈다. 피의자의 주거지가 범행 장소인 경우가 41.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1 km 이내 거주하는 경우는 28.2%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집 1, 2, 3, 4, 5는 피해자가 성인인 반면, 군집 6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했다. 그리고 군집 1, 3, 4는 3개 이상의 사건에 3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연쇄성 범죄였고 그 외의 군집은 비연쇄성 범죄였다. 군집 1은 피해자에 대해 특이한 성적 행위와 대화가 시도 되었으나 그 외의 군집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군집 1, 2, 5는 피해자가 주거하는 공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침입하여 범행이 이루어졌으나 그 외의 군집은 야외나 공공장소 등에서 갑작스런 덮침, 미행, 탐색 등 다른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군집 1, 2는 강간 후 가해자가 도주 전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는 패턴을 보였고 군집 3, 5, 6은 피해자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고 바로 도주하였다. 결론적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행동특성에 따라 강간범을 분류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각 군집단간 주요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군집간의 유의미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는 앞으로 범법현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 확인, 평가, 용의자 선정, 체포단계에 이르는 프로파일링 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Douglas, Burgess, Reissler, 1992).

본 연구는 프로파일링이라는 추론적 과정에 신뢰도

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다양한 사례와 유사범죄를 통해 미결 사건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고 용의자를 압축하는 일은 완전히 비과학적이라 할 수 없지만 다소간 분석관의 직감과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서 유사한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유사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간에 유형이 반복해서 묶여지고 또 이들간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난다면 수사관이 보지도 알지도 못한 용의자의 성격과 특성을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해 낼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단 한 번의 연구와 검증 작업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임은 분명하나 다양한 방법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계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보다 유용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본 연구는 피해자와 대면하여 각 종 질문에 대해 답하는 형식과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고 11명의 분석관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검자에 대한 간섭과 평가시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성범죄 집단을 6개의 군집 유형을 나눌 때 사용한 16개의 관련변인이 준거로써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현장과 피해자의 뚜렷한 속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리라 본다.

연구자는 관련변인 선정 작업에서 범죄현장과 피해자, 가해자와의 상호작용, 범행과정에서 주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준거로 선정하였으나 실제 비면식, 3건 이상의 연쇄성 성범죄자에 대한 범죄행동분석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한다면 연쇄성과 비면식 집단을 대상으로만 군집유형을 실시하여 군집별 가해자의 다양한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보다 더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더 많은 사례수가 추가 되어 보다 일반화의 가능성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 질적으로 다른 측정 도구를 병행하여 각 군집별 사회·인구학적 특징뿐만 아니라,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도 뒤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범죄행동 변인들과 더불어 언어적 반응을 함께 측정하여 다양한 군집에 적용시키는 연구들이 기존에 수행되어 왔다(서종한, 이원철, 김경일, 2010; 김경일, 배진희, 이창환, 2009; 서종한, 김경일, 2009; 이정화, 오지형, 정주성, 이창환, 2007; 최윤선,

이창환, 2008). 향후 이러한 다양한 측정방법이 포함되는 단일 연구들이 축적된다면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학문 및 실제적 이해가 보다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 경찰청 (2005).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서울: 경찰청.
- 경찰청 (2007). 강간범죄의 한국적 유형분류. 2007년 과학수사 국제학술세미나 논문집, 157-174.
- 김경일, 배진희, 이창환 (2009). K-LIWC를 사용한 남녀의 언어·심리적 특성 차이 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 11(3), 1307-1318.
- 김경옥 (2009). 방화범죄자의 프로파일링을 위한 연구, 범행현장과 행동특성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지선 (2009).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유형분류와 프로파일링,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고선영, 김경옥, 유지현, 정연대, 최대호 (2010). 연쇄강간범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2010연차 학술대회논문집, 332-333.
- 공은경 (2009). 연쇄 성범죄자 프로파일링. 경찰청 2009 범죄행동분석연구, 21-56.
- 곽대경 (2001). 경찰수사를 위한 범죄연구의 활용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2, 12-53.
- 권창국 (2002). 범죄자 프로파일링 증거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수사연구, 12, 34-45.
- 서종한 (2010). 성범죄자 유형 분석과 프로파일링 - 4가지 집단을 중심으로. 경찰청 2010 범죄행동분석연구, 45-109.
- 서종한, 김경일 (2009). 성폭력 가해자의 글에 나타난 언어·심리적 특성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 11(2), 717-730.
- 서종한, 이원철, 김경일 (2010). 범죄유형에 따른 PAI 군집분석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 12(5), 2631-2645.
- 박희정, 추창우 (2010).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행동특성을 중심으로 유형분석. 경찰청 2010 범죄행동분석연구, 117-132.

- 이정화, 오지향, 정주성, 이창환 (2007). K-LIWC 글분 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상담-내담자 언어분석. 한국 자료분석학회, 9(5), 2545-2568.
- 이진숙, 홍상남 (2008). 연쇄 성범죄 분석 - SCAS를 중심으로. 경찰청 2008 범죄행동분석연구, 23-45.
- 정연대 (2009).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가해자-피해자 관계에 따른 범행행동분석. 경찰청 2009 범죄행동 분석연구, 97-117.
- 전영실, 강은영, 박현민, 김혜정, 황태정, 정유희 (2007).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최윤선, 이창환 (2008).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분석 - 취입 및 탄핵 전후로 나눈 단계별 언술의 특성, 한국자료분석학회, 10(1), 573-590.
- 최인섭, 전영실, 이종택 (1991).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pp. 38-41).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ennett, W., & Hess, K. (1994). *Criminal Investigation*. Minneapolis, MN: West.
- David V. Canter, Craig Bennell, Laurence J. Alison, Steve Reddy (2003). Differentiating Sex Offenders: A Behaviorally Based Thematic Classification of Stranger Rapes. *Behavioral Science and Law*, 21, 157-174.
- Felson, R. B., Krohn, M. (1990). Motive For Rap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3), 222-242.
- Groth, A., & Field, M.A. (1983). Rape. *Encyclopedia of Crime and Justice*, 4, 1351-1364.
- Hazelwood, R., & Warren, J. (1989). The Serial Rapist: His Characteristics and Victims. *FBI Law Bulletin*, 58(2), 18-25.
- Henn (1979). The Aggressive Sexual Offender (pp. 301-316). NY: Kutash.
- Hicks, Scales (1999). *The mind that burns in each body: Women, rape, and racial violence*. In Ann. S., Christine. S.,
- Holmes, R. M., & Holmes, S. T. (2002). *Profiling Violent Crime: An Investigation Tool*(3 ed.). London: Sage.
- Holmes, R., & Holmes, S. (1996). *Profiling Violent Crimes*(2 ed.). Thousand Oaks, CA: Sage.
- John E. Douglas, Ann W. Burgess, Allen G. Burgess, Robert K. Ressler (2006). *Crime Classification Manual*. CA: Jossey-Bass.
- Morey, L. C. (1991).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Patrick W. A. (2003). Criminal Profiling: What's in a name ?. Comparing applied profiling methodologies. *Journal of Law and Social Challenges*.
- Turvey, B. E., (1999). *Criminal Profiling: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2 ed.). London: Academic Press.
- J. Wolfe, V. Baker (1980). Characteristics of imprisoned rapist and Circumstance of the Rape. *Rape and Sexual Assault*, 265-278.

Cluster Analysis Research of Sexual Crime and Profiling

Jonghan Seo Kyungil Kim

National Police Agency Ajou University

In this study, we performed cluster analysis based on the distinctive sixteen crime methods rapists left in the crime scene. As results of cluster analysis produces six clusters that cans represent individual rapist. Specifically, each cluster of rapists appropriate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and traits of rape as well as demographic and criminogenic variables. The first cluster ha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such as serial pattern, adults as victims, invasion, unique sex attempts and robbery in crime stage. The second cluster is revealed that the rapists are not serial, choose adults as victims, invade into the place of residence, rape without unique sex attempts and robber from victims. The third cluster appears to be serial, choose adults as victims, occur without invasion, rape without unique sex attempts, run away without robbery. The fourth cluster is exposed to be serial, for adults as victims, occur without invasion and rape without unique sex attempts. The fifth cluster is reveal to be not serial, offend adults as victims, rape without unique sex attempts and robber from victims. The sixth cluster is exposed to be serial, choose the young or juvenile as victims, occur without invasion, rape without unique sex attempts and run away without robbery. The six clusters also differ from various criminogenic variables such as crime motive, criminal record, age, the place residence, frequency of alcoholic drink, marriage, sexual habit, complex, thoughts and so on.

keyword : Rapists, Profiling, Cluster analysis, Demographic variables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01월 10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1년 02월 25일
게재 확정일 : 2011년 02월 25일